# 中國에 대한 歪曲된 視角의 再照明

윤 태 호/ 웨스턴 테크닉 서비스 코리아 대표

인구 10억 7,000만명에 세계 第3의 넓이를 자랑하며 국토 곳곳에 다양한 지하자원이 고르게 매장되어 있는 中国이 폐쇄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방을 시작한 지도 금년에 11년째 접어들고 있다.

개방 후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착실히 성공하여 온 中華人民共和国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또한 한국과 中国 상호간의 유력 인사들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소를 보내오고 있다.

1987년말까지 국내의 기업 중 5～6개의 기업이 이미 中国 내에 투자를 하였으며 300명이 넘는 財界와 政界의 인사들이 이미 中国을 다녀왔고 금년 들어와서는 더욱 공식, 비공식으로 유력 인사의 교환 방문이 잦아지고 있으며 中国의 일부 省에서는 국내에 홍콩을 경유한 支社를 설치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키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KOTRA와 무역협회 및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정부간 공식 레벨로 중국과의 교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실이 금년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時点에서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떠한 視角으로 보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시각에는 오류가 없는지 냉철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対中国観을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中国과 한국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日本과 협력하여 東아시아時代의 개막에 진취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과 활동 내역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筆者가 직접 듣고, 만나고, 느꼈던 中国을 업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中華人民共和国의 탄생 이후 現在

1948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이래 중국은 모택동 치하에서 10억 인구의 기아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의·식·주와 보건 및 초등교육 문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해결하여 왔다.

1958년부터 시작된 大躍進運動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계속된 文化革命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소멸되었으나, 약 30년간 10%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1978년말까지는 10억 인구의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平均化, 소득의 상대적인 平準化 분배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1979년 12월, 11期 3中全会에서 복권된 등소평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국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現代化 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이때부터 理念에 통치의 기반을 둔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가 아니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国富를 키우기

위한 実用主義 노선을 채택하였으며, 이때부터 등소평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고양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1979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중국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와 자본 협력을 실시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0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中国의 기술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고 빠른 발전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국제경제대순환론에 입각하여 수정하였으며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서 四小龍(한국, 홍콩, 싱가폴, 대만)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10년간에 걸친 그들의 개방 경험으로부터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소화하여 나아가기에는 中国의 기술과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NICS에서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 2. 実像과 虛像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모든 경제는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인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中国은 어떠한가?

불과 2, 3년전까지만 하여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경제는 국가와 당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추진 운용되었으며, 모든 공장의 공장장은 오직 계획되어진 목표만을 달성키 위하여 작업원들을 지휘·감독하면 되었던 것이다. 공장의 경영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한 모두 국가로부터 보상되었다.

중국 내에서 최근에 극히 제한된 숫자의 기업이 破産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모든 기업이 존속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의 약 15%를 不実 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중국에는 책임과 의무의 한계가 모호한 정책을 중심으로 비능률과 낭비와 태만이 만연된 사회 구조의 모순을 안고 있었다.

모든 노동자들은 일단 채용이 결정되면 그가 당의 지시에 따르고 복종하는 限 그의 직장은 平生 보장되었으며, 衣食住에 대한 보조와 의료 및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며(五包 : 교육·주택·취업·의료·복리후생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정책목표 때문에 생산공장이나 각 기관은 필요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야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생산성은 대단히 저하되었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또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인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을 창출하여야 하며 일단 고용이 결정된 노동자에게는 그가 일을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또한 열심히 일을 하여도 공정히 평가받지 못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소득이나 개인에 대한 능력 인정이 평가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조직은 정체되고 생산성은 대단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공장경영의 책임자에게는 損益 개념에 의한 상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직 계획량만을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조직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어떻게 품질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경영상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여줄 때에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장의 책임자가 노동자의 처벌권과 해고권한을 지니지 못한 채 동지나 동무로 불리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의 경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정부 또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하며 배급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하여 가격을 책정하며 대외홍보를 위하여 가격 인상률이나 이자율을 결정하고 결정과정에서 実보다는 名을 위하여 더욱 노력한다면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한 통제와 지도 속에서 경제가 운영된다면 그

것은 대단히 왜곡된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왜곡되어 경영되어지던 경제 및 사회주의 체제가 2000년대에 GNP 3倍 성장이라는 목표에 의하여 통제에서 자율로 사회주의 체제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취하여 더 나은 中国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중국전체가 물끓듯이 끓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 3. 언제의 중국인가?

국민의 平準化, 국민소득의 均一化, 생산 및 유통의 계획화, 가격 및 임금의 통제, 강력한 행정력 등으로 특정지어지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제도 전반이 개방의 바람 앞에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自力更生의 한계를 통감한 중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合作과 合営 및 직접투자를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와 모순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코자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중국은 그 결과로서,

첫째, 노동자의 자각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국영기업의 7.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점점 빠른 속도로 고용계약제도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기간의 명시와 근무조건 및 해고조건까지도 명시되고 있다.

둘째, 국가의 목표를 위해 책정되던 가격이 지령가격, 지도가격, 자유시장가격 등으로 3分化 되었으며 국가의 指令에 의하여 책정되던 지령가격의 수도 60가지에서 24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상품이 자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째, 기업의 종류도 全民所有, 集体所有, 個人所有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全民所有는 중앙정부가, 集体所有는 省 및 지방정부가 투자 소유하는 기업이며 個人所有의 기업도 아직까지는 대단히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기의 기업들과 合資나 合作을 한 외국기업이 10,000여개 이상 설립되었으며 단독투자 기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1988년말까지 2,500개 정도 증가 추산)

네째, 이제까지 국가와 당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기업을 과감히 政企分離 정책을 채택하여 공장의 경영을 당의 비서로부터 공장장에게 이전시키고 있으며 계획량 달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익의 창출에 목표를 두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이념하에서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여도 되느냐하는 이념적인 문제와 가격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통제와 관리 대신에 시장기능에 수요와 공급을 맡겼을 때 공급 부족으로부터 발생되는 가격의 앙등과 필요에 의하여 발행되는 화폐의 무절제한 発券으로 인한 인플레의 만연이 중국이 풀어야할 당면의 문제점이며 모택동의 지도에 의하여 가난과 기아를 추방한 공산주의를 물가의 앙등과 생활의 핍박 및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개방의 현상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장래는 변천을 겪게 될 것이다.

## 4.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고위 당직자 및 관료들은 세계경제대순환론을 제창하면서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중국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중국관계 세미나에 참석하여 보아도 신중론과 투자타당론의 대립은 第3자의 판단을 망설이게 한다.

보도되어지는 뉴스로부터 얻어지는 단편적인 소식은 중국이 마치 개방을 포기하는 듯한 착각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을 통하여 들려오는 정보는 2~3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는 단독 투자보다는 일본이나 미국과 협력을 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까?무릇 투자의 요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적 요소라고 한다. 때를 잡으면 이길 것이요 때를 놓치면 패한다는 말이다.

이제 중국은 10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대단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있으며 日本人들조차도 중국의 과감한 개방과 시정조치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市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제도를 실시하며 당의 간섭으로부터 경영자의 책임으로 경영권이 이양되고 있으며 이윤의 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중공은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전력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불비하며 따라서 수송과 통신 등 모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을 한다.

국가가 5包제도로 노동자의 권익과 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의 투자 기업인 경우는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에 부대비용(국영기업이 제공하는 수준의 복지비용)을 합하면 결코 싼 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예로 중국의 가장 낮은 임금은 60元이며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최고 간부의 월급은 500元이다. 1弗은 3.7元이므로 우리 돈과는 약 200 : 1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60元에 200원을 곱하면 1만 2,000원이 된다. 그러나 外資企業은 120-150% 정도 높은 급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우리 돈으로 약 1만 8,000원 정도를 최저 임금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상여금 및 복지부대비용을 250% 정도 가산하면 우리 돈으로 4만 5,000원 수준이 된다.

위의 계산에 40년간 체질화된 무사안일 주의로 노동자들이 나올 때, 해고권도 없는 경영자는 과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고용계약에 의하여 해고권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으로 바꿀 때 공정환율이 2배 가까운 교환비율로 바꾸어 송금한다면 과연 이익이 있을까?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30%에 노조가 설립되고 있으며 상당히 소란스러운 경우까지 발생된다는데 과연 그러한 여건에서 올바른 경영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은 우리가 중국의 사업성을 타진할 때 제기되는 의문점인 것이다.

우리는 과연 중국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중국을 어떠한 점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00년까지 GNP를 3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GNP를 성장시키기 위하여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높아야 하며 투자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는 市場과 판매력이 있어야한다.

우선 중국은 투자재원이 절대부족하다.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 빚을 지지않고 경제개발을 하고자 한다.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市場이 광활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과실 송금하여 버린다면 중국에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현지에서는 중국에 와서 돈을 벌고 싶으면 중국에도 이익되는 일을 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재를 도입할 때는 Buy back 조건을 달고 합작투자나 단독투자시는 일정률의 수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1960년대의 한국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요구했는가? 1987년부터 자동차의 수입을 실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하였는가?

산업이 유치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배양할 때까지 시장을 닫아두지 않았는가? 그에 비하여 중국은 훨씬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시행착오로 개선된 제도와 법령과 실제 경제여건이 일본의 다케시다 수상을 움직여 60억弗이 넘는 차관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조건으로 제공토록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한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보편화된 감탄사가 외국에 온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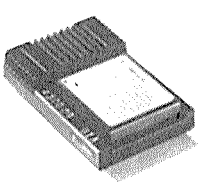
수천년간 이웃한 문화권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대로 변해버린 느낌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한국을 다른 외국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때문에 가까이 하고 협력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비록 다투기는 하였지만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친근감.

둘째, 작고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단시간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경이적인 업적으로부터 중국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

세째, 한국의 기술을 중국이 흡수하여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6.25의 비극으로 등을 진 사이이지만 한 世代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상처와 피해를 모두 잊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다가오는 미래를 냉철히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여 기회를 상실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중국은 우리앞에 산동성과 요령성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어느 나라의 제도나 법령에 못지 않은 현대화되고 합리적이며 도덕성을 지닌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전자산업은 Set 조립시설을 완비하여 놓고 부품 및 소재개발에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으며 7次5개년 계획기간중 중점육성 분야로 지정되었다.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10년전에 결정한 투자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훨씬 개선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世代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중국에 뛰어들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나갈 때 38년전의 악몽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이익의 원칙아래에서 중국과 협조하며 발전하는 것이 조만간에 來到할 東아시아 時代에 우리 대한 민국이 주역의 한 자리를 맡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